

## 2순환도 교통량 엉터리 용역 '시민 혈세' 매년 160억 샌다

### 광주시, 협약 파기·직접 관리 추진

엉터리 통계와 부실한 용역에 따라 체결된 민자도로 협약으로 인해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1구간, 3구간) 적자보전액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58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160억원의 혈세가 투입됨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민자회사와의 협약체결 조건의 근간이 됐던 광주시의 인구와 자동차 추정치가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광주시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자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두암IC~소태IC, 5.63km)의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현재 50%

내외이며, 3구간(효덕IC~풍암택지지구, 3.42km)은 40% 안팎에 불과해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추정 통행량은 광주시의 통계(인구, 자동차 수)를 기초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와 민간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검증 용역을 통해 결정됐다. 추정 통행량은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상(1989년 기준)의 인구 지표(2001년 180만명, 2006년 209만명)와 자동차 대수(2001년 51만대, 2006년 61만대)를 기초로 산출했다. 그러나 2006년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0만명으로 추정치의 69% 수준이며, 자동차 대수도 45만대로 추정치의 73% 선이다. 이로 인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개통 첫 해인 2001년

에 추정치(5만7천15대 예상)의 52% (2만9천659대)에 그쳤다. 2005년부터는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의 53%에 머물고 있다. 3구간의 실제 교통량은 더욱 적어, 개통 첫 해인 2004년에는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4만388대)의 41% (1만7천대)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39%로 떨어졌다. 통행량 부족에 따른 민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하는 적자보전액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제1구간은 2001년 60억원에서 2006년 99억원으로 늘었다. 2006년 3구간 적자보전액도 72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자도로 운영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협약변경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30일 사업시행권 취소 등 관리운영권 회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자도로 운영사측이 소송 불사를 선언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

### 통일쌀 남녘서 가꿔 북녘 보낸다 '한평 가꾸기' 추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정성스레 가꾼 '통일쌀'이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돼 통일의 초석을 다진다. '통일쌀 한평 가꾸기' 운동본부는 "30일부터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일쌀 한평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광주·전남지역 30만여평의 경작지에서 재배한 쌀을 오는 11월 북녘동포들에게 보내 통일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인터뷰 5면>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27개 지역 시·군·구민을 대상으로 경작지 한평당 1개와 5천원 모금운동을 통해 30만 개와 15억 원을 확보한 뒤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추진, 460여으로 추산되는 '통일쌀'을 수확해 전량 북송하게 된다. 김정길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이 사업은 통일농업의 기초를 제공,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민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30일 광산구 삼도동에서 '통일쌀 한평 가꾸기'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모내기를 실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태기자 itlee@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손준해)은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광주·전남지역 80여개 중소기업체와 400여명의 병역 의무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현장면담을 통해 80여명이 즉석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현재 356개 지정업체에 1천 213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 대신 복무중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민주 의원 5명 탈당 논의 "대통합 만나서면 내달 12일 결행"

민주당 현역의원 4~5명이 다음달 초까지 범여권 대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거취 문제 등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외 인사들도 범여권 대통합을 촉구하는 서명 작업에 나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차라리 탈당하라는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에 내분이 예고되고 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추위(중도통합추진위원회)·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전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설명하며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한 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존 입장을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범여권 대통합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번 주말께 만남을 갖고 통합 문제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12일에는 전주에서 회동, 탈당을 포함한 대통합 문제와 관련한 거취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다음달 초까지 범여권 대통합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 열린우리당 2차 탈당 세력 등과 함께 통합합선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다음달 12일 회동에서는 현역의원들은 물론 초당지역 사·도당 위원장 등 원내외 인사들이 모여서 추후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가 현재의 안이한 자세로 대통합을 의결할 경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직 의원 등 일부 원외 인사들은 민주당이 범여권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서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명을 바탕으로 박상천 대표 등 특정세력 배제론을 바탕으로 한 소통합에 나서고 있는 당 지도부를 적극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이미 권노갑, 한화갑, 박지원, 설춘 전 의원 등 동고동핵심 측근들도 박 대표의 소통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민주당은 대통합 방향으로 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원내외 인사들의 움직임에 박상천 대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다음달 1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 공개적인 비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당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유일의 명문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임총장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상으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임총장실 1588-5051 ▶ T.(061)360-5000

## 포스코, 세계 철강사 새로 썼다

### '파이넥스 공법' 세계 첫 상용화

세계 최초로 기존 용광로 공법을 대체하는 포스코 파이넥스(FINEX) 상용화 설비가 30일 준공, 본격적인 쇳물생산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이날 포항제철소내 파이넥스공장 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구택 포스코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철강업계 CEO, 포스코 관계자 등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넥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1면> 이날 행사는 용광로에 불을 처음

지피는 화입식과 파이넥스 관련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과 파이넥스 공장에서 쇳물이 나오는 출산과정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파이넥스 공장 완성은 영일만에 철강산업의 불을 지핀지 40년만에 세계 철강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며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준호기자 chkim@

▲파이넥스 공법=철광과 유연탄을 용광로 공법에 반드시 필요한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거치지 않고 고로에 직접 넣어 그대로 쇳물을 뽑아내는 신기술로, 포스코가 지난 92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가 2004년 개발에 성공한 고유기술이다. 특히 기존 용광로 공법에 비해 쇳물 제조원가를 15~17% 가량 절감할 수 있고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종태기자 itlee@

127  
이나영의 멜라닌 지수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펜 화이트젠 RXC 인텐티브 에센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겉으로 드러나는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꿔주는 딥아이오펜이 중요하다.

멜라닌 요오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캡슐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펜가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 캡슐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있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환한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칙칙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Melanin Index)란?  
엑사미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자가 끝낸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펜 피부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닝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iope.co.kr